

5. 한우 사양표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농산부산물을 사료로 제조하는 방법은?

한우 사양표준은 경제적인 한우 사육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영양소를 급여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지침서이다.

한우 사양표준의 “표준”이 의미하는 것은, 한우 사양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우의 영양소 요구량은 ① 방목이 아닌 우사에서 사육하는 표준능력의 한우 ② 표준적인 환경 조건 ③ 안전율을 포함하지 않는 최소 영양소 요구량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방목, 군사, 환경 온도 등의 환경 변화와 고급육 생산과 같은 사육목적에 따라 영양소 요구량의 보정이 필요하다.

한우 사양표준은 2002년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국내외에서 수행된 한우 관련 연구 결과를 수집하여 2007년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을 토대로 거세우, 수소 및 번식우의 성장단계별 사료 급여 체계를 설정하여 전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특히 한우농가에서 사료비 절감이나 고급육 생산을 목적으로 직접 주변의 농산부산물을 이용하여 사료배합을 하고자 할 때 사육하고 있는 거세 한우에 대한 생후 월령별 영양소 권장량, 조사료와 농후사료 비율 및 조사료원의 구분에 따른 체계적인 사료 급여 프로그램 및 사료배합비 작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방법을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sa.go.kr>) 접속 → 연구활동 → 농가활용 프로그램 → 34번 한우사양표준 2019 프로그램(TMR 배합비 프로그램)

(동물영양생리과 / 063-238-7499)